주식회사 유틸렉스

PRESS RELEASE	배포일자: 18.12.12

유틸렉스, 공모가 50,000원 확정... 희망 밴드 최상단!

▶ 국내외 786개 기관 참여, 단순경쟁률 597.2대 1 기록... 의무보유 확약 18.6%
▶ 오는 13일~14일 일반청약 거쳐 24일 코스닥 입성

<2018-12-12> 유틸렉스가 수요예측 흥행에 성공했다.

면역항암제 개발 선두주자 ㈜유틸렉스(대표이사 권병세)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인 50,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공모금액은 364억 원, 시가총액은 3,633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유틸렉스는 38,000원~50,000원을 희망 공모가 밴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786개 기관이 참여, 321,282,000주를 신청해 단순경쟁률 597.2대 1을 기록했다. 참여 물량의 99.5%가 밴드 상단인 50,000원 이상에 몰렸으며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8.6%에 달한다.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많은 기관 투자자께서 유틸렉스 주요 파이프라인의 강력한 항암효과와 무한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 비전에 공감과 믿음을 보내주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틸렉스는 사업부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면역항암제 전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항체치료제 파이프라인 EU101은 높은 신약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중국 절강 화해제약과 총 3,55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화해제약은 3,000만 달러 규모의 지분투자를 진행하며 유틸렉스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기도 했다.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글로벌 임상 진행 및 GMP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 유틸렉스는 항체치료제와 CAR-T세포치료제는 비임상 및 임상 단계에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을, T세포치료제는 자체 개발 후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른 T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앱비앤티의 경우 오는 2021년 한국에서, 2022년 미국에서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권병세 유틸렉스 대표이사는 "기존 면역항암제들의 타깃인 혈액암뿐 아니라 다양한 고형암에 대해서도 부작용 없이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혁신 신약을 개발할 것"이라며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나아가 글로벌 면역항암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은 오는 13일~14일 진행된다. 전체 공모 물량 중 20%인 145,400주가 배정된다. 유틸렉스는 12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